

1부: 오전 9:00, 2부: 오전 11:00

예배로의 초대 Invitation		인도자
신앙고백 Confession		다같이
찬양과 경배 Worship		다같이
기도 Prayer		다같이
광고 Announcement		인도자
말씀 Sermon	성탄 - 예수님께서 왕 되신 나라의 시작 요 6:60-71	곽형일 목사
결단의 시간 Dedication		다같이
축복기도 Benediction		곽형일 목사



3부: 오후 1:30 성탄절 이브 행사 준비로 쉽니다

예배로의 초대 Invitation		인도자
찬양과 경배 Worship		다같이
기도 Prayer		다같이
축복기도 Benediction		곽형일 목사

- 새예배당을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10015 Main St, Fairfax, VA, 22031
1) 교회 Special Use Permit - 12월 중순에 최종 투표일을 결정합니다
2) 교회 Building Permit - 적절한 교회 설계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3) 교회 리모델링을 위한 건축가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2024 성탄 감사 발표회- 12.24 (화)
1) 오후 6시 - 오시는 대로 저녁 식사 제공됩니다.
2) 오후 7시 - 성탄 감사 발표회
- 2024 성탄 감사의 밤에 발표하실 분들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5년에는 교회에 1:1 제자 훈련을 셋업하기 원합니다(총 16주 코스)
- 2025년 교회 표어와 말씀이 신명기 33:29로 결정되었습니다.
- 표어 -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아슈레카 생명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와 구원을 너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너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에 헌금함에 넣어 주시면 됩니다.

● 지난주 헌금 (Last Week's Offerings)

주정 헌금	1487	건축 헌금	80
십일조	3200	멕시코 바수론	590
감사헌금	395	선교지정	460
			총액
			6,212

1. 예수님이 걸림이 되는 이유

2.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3. 성탄, 하나님 왕국의 시작

● 썰 그룹 나눔 주제 Questions for Cell Group Sharing

1. 하나님의 말씀 중 믿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까?
2. 과거에 말씀이 잘 믿어지지 않으신 적이 있는지요,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3. 예수님께서 왕이 되신 성탄절을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4. 예수님이 아닌 자신이 왕이 되어 있다고 느끼는 삶의 영역이 있습니까?
5. 예수님께서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고 느낄 때는 언제입니까?

● 예배 및 모임 안내 (Services and Meetings)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	화-금 새벽기도 (온라인)	오전 5:30
주일 2부 예배	오후 11:00	토요새벽기도	오전 6:30
주일 3부 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YM, EM	오전 11:00
수요 성경공부	오후 7:3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토요 여성 성경공부	오전 9:00	새가족 성경공부 (주일)	오전 10:00

● 후원선교사 (Supporting Missionaries)

Missionary	Country	Missionary	Country
고동훈/김홍희	Israel	김성화/진옥경	Dominica Republic
성명구/황은주	Mexico	장순희	Nepal
정은희	South Sudan	성화영	Sri Lanka
김광호	NK Church	강태호	Japan
나운주	Washington DC	이흥구	California

● 성탄, 하나님 왕국의 시작



● 목회 편지 - 성탄, 하나님 왕국의 시작

이번 주일은 성탄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위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사실 성탄절은 정확히 예수님께서 오신 날은 아니라는 것에 많은 성경학자들이 동의를 합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을 맨 처음 목격했던 이들은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이고, 12월달은 들판에서 양을 방목하는 계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성탄절은 3월달일 것이라 추측을 합니다. 복음서에서도, 사도행전에서도, 그리고 이레니우스나 터툴리안 같은 초기 기독교의 교부들 역시 예수님의 성탄절을 따로 정하여 기념했던 흔적을 남기고 있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원래 이교도들이 지키던 동지날을 기독교가 이교도를 정복했다는 의미에서 크리스마스로서 대체를 한 것이었습니다. 즉 실질적 성탄절이 아닌 역사적 의미로서의 성탄절인 셈이지요.

현대에 와서는 성탄의 의미마저 퇴색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탄절에 예수님을 떠올리는 사람보다는 신타나 루돌프 사슴코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더 많고, 예수님보다는 크리스마스 추리가 무대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추리 역시 성목 송배의식에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퇴색이 된지 오래입니다. 성탄절 행사에 산타의 모자나 산타로부터 선물을 받기 위해 빨간 양말을 걸어 두는 것은 기본이고, 교회 내에서 선물을 나눠주는 행사에도 버젓이 산타가 등장하여 설치고 돌아 다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한낱 인간에게 밀려난 모양새인 것이지요. 성탄절의 의미 역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날이라는 인식보다는 가족끼리 근사한 곳에 여행을 하며 여유를 즐기는 시간으로 인식을 합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놓지 않는 세상의 인식과 교훈을 성도들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만 것이지요. 과연 성탄을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예수님께서도 즐거워 하실 수 있으실까요?

일부 혁신적인 주장을 하는 분들처럼 성탄절을 지키지 말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정확한 날에 맞추어 생일 파티를 해드리자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위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기념하는 날이어야 합니다. 그 날이 12월 25일로 정해져서 세상이 즐거워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날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위에 오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세상이 알게 해주는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애초에 성탄절 행사 자체가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생일 파티 안해준다고 역정내실 분도 아닙니다. 따라서 성탄절 생일 파티가 아니라,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의미를 성도들이 마음에 새기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성도들을 통해 세상에 주님께서 오신 이유가 드러나는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불러 모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은 두 개의 나라로 나뉩니다. 자신이 주인된 나라와 하나님께서 주인된 나라입니다. 자아의 왕국의 끝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벌이요, 하나님의 왕국의 끝은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영생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구원의 주로 모셨기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모셨다는 것은 자아가 왕이 아닌 예수님께서 왕이신 인생을 살기로 결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성탄절 기간, 우리가 왜 기뻐야 하는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생명수가 넘쳐 흐르는 교회



2024 표어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Behold, I will do a new thing; now it shall spring forth
이사야 (Isaiah 43:19)

EM: Mark Lee 목사 / 장애우사역: 박경숙 전도사
Youth: Isaac & Martin Lin
제자훈련: 허용범 전도사 / 상담: 전에스티 전도사
아동부: 민경은 사모 / 유년부: 배민희 전도사
영아부: 배미자 권사 / 원로: 임종길 목사

담임: 곽형일 목사
7200 Ox Rd, Fairfax Station, VA 22039
T. 571.839.3058
LivingSpringVirginia@gmail.com
www.LivingSpring.net